

가 정 사 도 직

박 토 마 주교

〈한국 주교회의 가정사목 담당주교〉

家庭 使徒職의 重要性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항상 가르쳐 왔고, 항상 사실로 드러나 있는 진리 즉,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초요 교회의 초석이며 핵심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원천적인 학교임을 재천명 하였습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사회요 가족적인 교회이며 가정 없이는 교회나 사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교회와 사회의 미래는 가정의 안정과 聖化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이 가는 대로 교회나 인간 사회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나 사회의 理想은 교회나 사회가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 되는 것일 겁니다.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요, 흠승과 은총과 대화의 연속이며 德의 학교입니다. 가정의 일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교회 안에 성체성사로서 현존하시는 그분은 가정 안에서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현존하십니다. 가정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그 구성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이 교회에 봉사하기보다는 교회가 가정에 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목자가—그가 교회에 진정으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가정의 福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 희망, 사랑, 정의, 순결, 절제 같은 덕들이 가정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 깊은 의미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기도의 뜻과 정신이 가정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전체적 기도는 형식

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신앙을 가정 안에서, 가정과 가정으로 주고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도 주고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권리, 즉 생명 자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정결치 못하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음을 자녀들이 안다면 이들은 정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기적인 부모가 어찌 이기적이 아닌 자녀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가정 교육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부모를 도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신앙과 정결, 정의와 기타 중요한 덕행들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家庭에 대한 威脅

그리스도교적 가치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들은 지금까지 위협받지 않은 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이교도적인 향락주의의 위협을 받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지나친 정신주의와 이교도적인 엄격주의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반대의 현상이 예상 외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향락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기술과 발전은 모든 쾌락을 가

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은 쾌락이지 행복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와같은 위기는 특히 가정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덕행의 세계대전의 전장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이론들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상실한 결혼생활, 이혼, 혼외정사 등은 새로운 게 없고 피임과 낙태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의를 상실한 결혼생활, 이혼, 혼외정사 등 온갖 못된 것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오늘의 사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좀더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예외가 아닌 정상인 것으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피임과 낙태를 위해 약초 등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놀랍게 발전한 현대 기술의 덕으로 100%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남용은 윤리적인 것으로서 당연히 사목자들의 관심 사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 즉 이기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약물이나 알콜 중독 역시 사목자들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치유책 즉 결혼의 은총, 하느님의 향구한 도우심, 가정기도, 사랑과 존경, 가족들간의 대화, 크리스찬 자녀교육 등 이 모든 것들도 사목자의 일입니다. 만일 사회 자체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위협에 처해 있다면 교회가 사회를 구하는 길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여러 회칙, 「정결한 부부생활」(*Casti Connubii*), 「인간 생명」(*Humanae Vitae*), 「가정 공동체」가 시의적절하게 반포되었던 것이며, 오늘의 회의도 그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위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낙태와 피임이 계속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1억 이상의 아기가 매년 피임이나 자궁내 피임장치(I.U.D.—Intrauterine Devices)에 의해 살해되고 있으니 세계가 이런 참사를 일찌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핵전쟁도 그런 재앙을 물고 오지 못할 것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30세 이상의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적어도 한번 이상의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부들이 피임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 상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가정생활의 성화를 해치며 창조주께서 의도하시고 세워놓으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외적으로만 守誠 생활을 하고 인구 조절에 대한 교회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역에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가 피기를 원하면서도 피임이나 낙태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젊은 부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가정의 성화는 파괴되며 젊은이들은 덕스러운 크리스찬 생활의 모범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폐품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도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향구한 결함이 불필요하게 된 것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회는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幸福한 家庭 運動

한국에는 주교회의 산하에 가정사목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정사목 위원회 밑에 M.E.와 C.F.M 그리고 행복한 가정 운동(Happy Family Movement) 기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운동은 몇몇 사목자들과 의료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주교회의에 의해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신자전 비신자전 전국의 모든 가정의 성화와 행복 그리고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가정의 모든 덕, 즉 부부애, 존경, 효도, 대화, 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해, 가정생활의 은총과 축복, 크리스찬자녀교육 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피임과 낙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므로 우리는 자연적인 가족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대신 구체적인 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본당과 큰 공소와 가톨릭 의료기관에 행복한 가정운동 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원 가정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미사를 봉헌

하고 공동으로 기도하며 연구하고 서로 격려할 것입니다. 자연적인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은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교구마다 교구협의회를 두고 전국에는 조정 위원회를 두어 지방의 센터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운동이 한 두 교구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나머지 교구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교들은 낙태와 피임의 죄악에 대해서 또는 가정생활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몇가지 사목 서한들을 발표하였으며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매우 훌륭한 지침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사제와 수녀들이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포함하여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매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백명 이상의 가정 상담가들이 자연적인 가족계획의 배판법과 기타 가정 생활 문제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50명 정도는 유급이고 나머지는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수백명의 부부들이 다른 부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충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년 70명 정도의 가정 상담가들이 새로운 코스를 통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책과 팸플릿, 차드와 슬라이드 그리고 필름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E., 부부를 위한 피정, 가나 강좌, 젊은이를 위한 성교육, 결혼채신 코스 등이 계속 열리고 있고 그 성과 또한 매우 고무적입니다. 8만쌍이 넘는 부부들이 자연 가족계획의 하나인 빌링스법을 배웠고 이들을 가정 상담가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약 3천 쌍의 부부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5% 정도의 실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아마 방법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의 성공담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실

지 모르나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목자들이 아직도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겨우 10%이하의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全國的, 敎區와 本堂 次元의 프로그램

이상에서 언급한 방안들은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나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교회로 돌아와 성사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예비자들은 맞아들였으며 가정생활의 모든 면이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가정생활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 기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보다 많은 정성을 쏟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적인 가족계획은 신자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의 교구에서는 모든 부부들이 자연적인 가족계획에 대해서 배웠고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실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낙태와 피임은 우리 교구에서 이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나이가 찬 소녀들과 새로운 예비 신자들 그리고 미신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매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가정의 보호하심 아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앞으로 보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